

노인가구의 부채부담과 부채상환가능성 분석 : 노인가구 유형에 따른 비교

정다운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석사)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I. 서론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의 진입에 임박하였고(통계청, 2016a),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추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 40%를 초과할 전망이다(통계청, 2016c). 또한 2015년 기준으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가구이며 그 중 32.9%는 고령자 1인가구로 나타난 바(통계청, 2016a), 향후 우리나라 노인독거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¹⁾.

한국은행(2016)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가계부채는 1,295.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중장년층에서 부채규모가 크고 은퇴 직전에 부채축소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남상호, 2015). 그러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16b)의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은 4,926만원이었고, 60세 이상 가구의 47.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도 상당한 부채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기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유자산을 현금화하여 소비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상환의 부담은 소비지출의 위축과 재무건전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노인1인가구는 자산규모 및 경제적 안정성, 경제적 취약성이 부부노인가구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심영, 2010), 대개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연령대가 높으며, 건강에 매우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세정·성영애, 2001; 김기태·박봉길, 2000).

노인가구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상태를 비교하였고(김시월·조향숙, 2014; 김재호·오신휘, 2015; 이희숙·신상미, 2003 등), 노인가구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양세정·성영애, 2001; 심영, 2010; DeVaney, 1995 등)에서도 주로 규모 측면에서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자산 규모와 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노인1인가구의 부채액이 부부노인가구의 부채액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채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산이나 소득이 충분하여 계획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면, 부채로 인한 부담은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가구의 부채부담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 2010년 우리나라의 전국 1인 가구는 32~66세(44.2%), 35세 미만(30.4%), 65세 이상(25.4%) 순으로 나타났으나 기대수명 연장 및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고령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35년에는 65세 이상(45.0%), 35~64세(38.3%), 35세 미만(16.7%) 순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유형을 부부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 남성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부채보유 여부와 부채보유액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후, 각 유형별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가계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부채상환의 원천이 되는 소득과 지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부채부담과 부적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부채부담 관련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부채부담지표 뿐 아니라, 미래의 지출 흐름을 고려하여 부채상환가능성 파악하고, 이를 노인가구 유형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형별 노인가구의 부채부담 실태와 부채상환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경제적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2.1 노인가구의 부채부담 관련 연구

김재호와 오신휘(2015)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생활수준을 지역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소득분위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33.5%는 가구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부채보유액은 2,630.8만원으로 나타났다.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부채보유율과 부채규모가 읍·면부 거주 노인가구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율은 감소했으며, 80-84세 연령군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채보유금액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1인가구의 경우, 부채보유율은 18.1%, 평균 부채보유액은 829.3만원이었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부채보유율과 부채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영(2010)은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 2인 이하로 구성된 2,231가구를 부부노인가구, 남성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로 구분하여, 자산 및 경제적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전체 노인가구의 79.5%가 저소득층에 속했고, 특히 저소득 여성노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가구의 총자산, 주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규모가 남성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1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신민경(2014)은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1인가구의 특징에 따른 재무구조를 살펴보았는데, 1인가구의 부채보유율은 64.9%로 전체 가구의 부채보유율 62.8%를 상회했으며, 61.1%가 소득 1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남성가구주보다 높았고,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1인가구의 43.2%가 비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년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여 노인 1인가구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민정과 이희숙(2010)은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1,957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노년기에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자녀독립기에 비해 주택소유비율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사회보험이나 이전소득 등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총자산과 총부채, 순자산은 형성기에 가장 적었고, 점차 증가하여 자녀독립기에 가장 많다가 노년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년기 가계도 28.5%로 나타났다.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재정, 건강, 심리 상태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김시월과 조향숙(2012)의 연구에 따르면,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자산은 68,576천원, 부채는 33,19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정만족도는 5점 만점에 2.43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명숙과 태명옥(2016)은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4차 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높을수록 여가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권중돈과 조주연(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 고령노인,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노인가구의 부채상환가능성 관련 연구

김민정과 조혜진(2013)의 연구에서는 노후보장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은퇴자가계의 재정적 특성을 비교하였고, 부채보유 은퇴자 가계의 부채상환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은퇴생활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상환가능성을 평가했을 때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은퇴자가계는 21.3%였으나, 은퇴생활자금을 고려한 경우에는 2배 이상 증가한 41.1%의 은퇴자가계가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가계의 부채상환가능성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남은 은퇴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자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송현주와 윤정혜(2012)는 노후보장패널 3차년도 자료 중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 1,234가구를 소득과 자산에 따라 네 집단(저소득·저자산, 저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고소득·고자산)으로 분류하여 부채보유여부와 규모, 가계재무지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많았으며, 자산규모가 큰 집단이 부채규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부담지표 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지표는 저소득·저자산 집단이 0.65로 네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지표 역시 저소득·저자산 집단이 12.50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이들 가계의 경우, 빈곤층이 다수 포함되어 생계형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부채부담이 노후 시기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생애기간 내 부채상환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2.3 부채부담과 부채상환가능성 평가 관련 연구

재무비율은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 주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가계경제요소를 결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신뢰성 있는 재무상태 평가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가계의 건전성 측면에서 부채부담을 평가하는 재무비율인 부채부담지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단기부채부담지표는 현금흐름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주로 가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를 통해 부채상환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채부담을 측정하고 여타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기부채부담지표의 준거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었는데, DeVaney(1993)는 0.4 이하를 제시한 것에 반

해, 최현자 등(2003)은 0.25 이하, 양세정과 정지영(2010)은 0.2 이하를 제시하였다. 또한 양세정 외(2013)에서는 0.3 이하를 제안하였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0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중기부채부담지표와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자산부채상태 측면에서 부채부담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중기부채부담지표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채부담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나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로 측정된다. 총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준거기준으로는 0.1의 값이 제시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을 총부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부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음을 의미하며, 추가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지표이다(배미경, 2001; 최현자 등, 2003).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또는 총부채 대비 총자산의 비율로 측정되고, 일부 연구에서는 총자산 대신 순자산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는 1을 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최현자 등(2003)의 이후에는 0.8~0.5 미만이 제시되었으며(양세정·정지영, 2010), Lytton 등(2006), 양세정 외(2013)에서는 0.4 미만을 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형별 노인가구의 부채부담 실태와 부채상환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가구 유형(부부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 남성노인가구)에 따라 부채보유 여부와 부채보유액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유형별 노인가구는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인구사회적 특성, 재무특성,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부채부담지표와 부채상환 가능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3.2 분석자료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 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경제상태와 경제활동, 건강상태와 기능상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인의 다각적인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특성의 변화추이를 예측함으로써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용 가능한 최신의 자료인 2014년 노인실태조사는 2014년 6월~9월 중 전국 975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10,451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중 동거 가구원이 없는 노인가구 6,340가구의 자료를 분

석대상으로 하였다.

3.3 측정도구의 구성

3.3.1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및 교육연수, 취업여부, 거주지역을 조사하였다. 부부노인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를 조사하였다.

3.3.2 재무특성

재무특성은 자산과 부채, 소득과 소비지출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였다. 자산과 부채는 노인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및 부채의 보유여부와 금액을 조사하였다.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기입한 금액을 합산하였다.

소득은 노인 본인의 연간 세후소득을 조사하였고,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파악하였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농지연금, 사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공적급여 및 기타소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다섯 가지로 재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소비지출은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액을 조사하였다. 세금, 사회보험료, 대출금 상환액 등의 비소비지출과 부동산 등의 자산축적을 위한 지출은 자료의 제한으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3.3.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경제상태,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활동의 세 가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3.4 부채부담지표와 부채상환가능성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준거기준은 Lytton 외(2006), 양세정 외(2013)에서 제시한 0.4 이하를 적용하였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준(danger point)을 의미한다.

중기부채부담지표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채부담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준거기준은 Griffith(1985), 양세정·정지영(2010)에 따라 5배로 적용하였다.

부채상환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 남은 노후기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 총액의 현재가치]을 계산하였다. 자산은 총자산과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금융자산+기타자산)을 각각 적용하였다.

남은 노후기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 총액은 기대여명 동안 필요한 지출에서 소득을 뺀 금액이며, 물가상승률과 자산수익률을 반영하였다. 현재 총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생활

비와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생활비를 각각 적용하였다. 기대여명은 통계청의 2014년 완전생명표의 남녀 기대여명을 적용하였으며, 부부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기대여명을 적용하였다.

노후기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 총액의 현재가치

$$= (\text{현재 생활비} - \text{현재 소득}) \times \left(\frac{1 - (1+k)^{-n}}{k} \right)$$

$$k = \left[\frac{1+i}{1+j} \right] - 1 \quad (i = \text{자산수익률}(3\% \text{ 가정}), j = \text{물가상승률}(2\% \text{ 가정}))$$

n = 남은 노후기간 (2014년 완전생명표, 남녀 각각 적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 노후기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 총액의 현재가치]가 1보다 크다면, 현재의 보유자산을 처분할 때 노후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부채상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4.1 노인가구 유형별 부채보유여부와 부채보유액 비교

조사대상 노인가구(n=6,340) 중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인 부부노인가구가 3,932가구로 62.0%를 차지했고, 남성노인가구는 436가구(6.9%), 여성노인가구는 1,972가구(31.1%)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부채보유여부와 부채보유액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노인가구의 27.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채보유액 평균은 2,104만원이었으며,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은 7,61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부부노인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고, 남성노인가구의 24.1%, 여성노인가구의 16.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부채보유액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각 유형별 전체가구의 부채보유액 평균은 부부노인가구가 2,886만원으로 남성노인가구(1,405만원), 여성노인가구(702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부채보유액 평균 역시 부부노인가구가 8,6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1> 노인가구 유형별 부채보유여부와 부채보유액 비교

(단위: 가구, %, 만원)

		전체노인가구 (n=6,340)	부부노인가구 (n=3,932)	여성노인가구 (n=1,972)	남성노인가구 (n=436)	x ² /F
부채보유 여부	보유	1,764 (27.8)	1,327 (33.7)	332 (16.8)	105 (24.1)	190.34***
	미보유	4,576 (72.2)	2,605 (66.3)	1,640 (83.2)	331 (75.9)	
부채 보유액	전체가구 평균	2,103.61 (11,383.21)	2,886.47 b (14,078.66)	701.93 a (3,047.13)	1,404.9 3a (6,482.37)	25.21***
	보유가구 평균	7,610.00 (20,664.61)	8,615.61 b (23,292.08)	4,183.91 a (6,393.09)	5,829.18 ab (12,230.43)	6.53**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수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4.2 유형별 노인가구의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가계 특성 비교

4.2.1 부부노인가구의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 재무특성, 생활만족도 비교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부부노인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재무특성 및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및 거주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부부노인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72.7세)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 연령(74세)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부채보유가구의 가구주는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상인 비율이 높은 반면, 부채미보유가구의 가구주는 초등학교, 무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연수도 부채보유가구 가구주(8.24년)가 부채미보유가구 가구주(7.04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부채보유 부부노인가구는 동단위에 거주하는 비율이 부채미보유 가구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재무특성은 연간소득, 연간소비지출 및 자산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금융자산 보유액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간총소득은 부채를 보유한 부부노인가구가 2,033만원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부부노인가구(1,453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연간소비지출 역시 부채를 보유한 가구(1,759만원)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1,347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부채보유가구는 소비지출이 소득의 86.9%를 차지한 반면, 부채미보유가구는 소비지출이 소득의 92.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부채상환액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16) 결과, 60세 이상 가구의 비소비지출이 소득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분석한 김민정, 조혜진(2013)의 연구에서 부채보유 은퇴자가가계의 비소비지출이 소득 대비 15.3%, 부채미보유 은퇴자가가계의 비소비지출이 소득 대비 4.8%로 나타난 것을 참고할 때, 부채보유가구는 소득-소비지출 차액의 상당 부분을 부채상환을 위해 지출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2> 부부노인가구의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가계 특성 비교

(단위: 명, %, 만원)

구분	변수		빈도(%) / 평균(표준편차)			x ² /t
			전체 (n=3,932)	부채 보유 (n=1,327)	부채 미보유 (n=2,605)	
인구 사회적 특성 ¹⁾	연령(세)		73.54 (5.82)	72.66 (5.53)	74.00 (5.92)	-7.00***
	교육 수준	무학	863 (21.9)	223 (16.8)	640 (24.6)	53.28***
		초등학교	1,350 (34.3)	433 (32.6)	917 (35.2)	
		중학교	585 (14.9)	226 (17.0)	359 (13.8)	
		고등학교	750 (19.1)	276 (20.8)	474 (18.2)	
		대학 이상	384 (9.8)	169 (12.7)	215 (8.3)	
		교육연수(년)	7.45 (4.76)	8.24 (4.71)	7.04 (4.74)	7.49***
	취업 여부	취업	1,246 (31.7)	428 (32.3)	818 (31.4)	.30
		비취업	2,686 (68.3)	899 (67.7)	1,787 (68.6)	
	거주 지역	동	2,935 (74.7)	1,097 (82.7)	1,838 (70.6)	67.85***
		읍/면	996 (25.3)	230 (17.3)	766 (29.4)	
재무 특성	연간 소득	근로+사업소득	501.33 (1,200.37)	736.84 (1,808.22)	381.26 (683.17)	6.92***
		재산소득	260.42 (646.19)	482.14 (819.53)	147.39 (500.38)	13.64***
		연금소득	15.02 (143.08)	32.71 (224.99)	6.00 (69.83)	4.22***
		사적이전소득	414.96 (382.66)	390.72 (420.43)	427.32 (361.35)	-2.70**
		공적이전소득	456.90 (660.32)	390.30 (569.11)	490.85 (699.95)	-4.84***
		총소득	1,648.63 (1,484.92)	2,032.70 (2,016.08)	1,452.82 (1,069.82)	9.80***
	연간소비지출		1,486.27 (1,026.85)	1,759.13 (1,280.38)	1,347.24 (836.43)	10.62***
	자산	부동산 자산	24,776.04 (45,708.07)	40,387.95 (64,827.00)	16,911.54 (29,002.61)	12.50***
		금융자산	3,651.24 (10,036.38)	3,956.53 (11,229.90)	3,497.46 (9,376.33)	1.27
		기타자산	445.08 (2,048.81)	688.54 (3,099.41)	322.44 (1,196.12)	4.13***
		총자산	28,872.36 (50,107.59)	45,003.02 (70,371.34)	20,731.44 (32,931.08)	11.87***
생활 만족도	경제상태		2.58 (.93)	2.58 (.97)	2.58 (.91)	-.07
	자녀와의 관계		3.72 (.88)	3.68 (.88)	3.75 (.88)	-2.42*
	사회·여가·문화활동		3.12 (.94)	3.16 (.96)	3.11 (.92)	1.52

¹⁾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함.

*p<.05, **p<.01, ***p<.001

소득원천별로 비교해 보면,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은 부채를 보유한 부부노인가구가 유의하게 많은 반면,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부부노인가구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가구의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총자산을 비교한 결과, 부채보유가구는 총 4억 5,003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부채미보유가구 총자산(2억 731만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자산의 차이는 부동산자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부채보유가구의 부동산자산이 4억 388만원인데 반해, 부채미보유가구의 부동산자산은 1억 6,91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자산 보유액도 부채보유가구가 유의하게 많은 반면, 금융자산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부부노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만족도,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부채보유라는 재정적 부담이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순자산, 경제적 자립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권중돈·조주연, 2000; 전명숙·태명옥, 2016)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2.2 여성노인가구의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 재무특성, 생활만족도 비교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여성노인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재무특성 및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거주지역 모두에서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여성노인의 평균 연령(72.7세)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여성노인(76.9세)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부채보유 여성노인의 교육연수(4.95년)는 부채미보유 여성노인(3.68년) 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여성노인가구의 85% 가량이 무학, 초등학교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어, 부부노인가구, 남성노인가구의 가구주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부채보유 여성노인의 경우, 동단위에 거주하는 비율이 부채미보유 여성노인 보다 높았고, 취업자의 비율이 부채미보유 여성노인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재무특성을 살펴보면, 부채를 보유한 여성노인가구의 연간총소득은 951만원, 연간소비지출은 915만원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여성노인가구의 연간총소득(779만원), 연간소비지출(915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여성노인가구의 연간총소득은 부부노인가구 연간총소득의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부채보유가구는 96.2%, 부채미보유가구는 93.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비소비지출을 포함할 경우, 지출이 소득을 초과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특히 부채보유가구의 경우,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득 원천별로 살펴보면, 부부노인가구에서 모든 원천별 소득이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것과 달리, 여성노인가구는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여성노인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총자산을 비교한 결과, 부채보유가구의 총자산(1억 9,570만원)이 부채미보유가구의 총자산(7,328만원)의 2.7배 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보유가구의 부동산자산과 기타자산 보유액이 부채미보유가구 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금융자산에서는 유의한

<표 3> 여성노인가구의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가계 특성 비교

(단위: 명, %, 만원)

구분	변수		빈도(%) / 평균(표준편차)			x ² /t
			전체 (n=1,972)	부채 보유 (n=332)	부채 미보유 (n=1,640)	
인구 사회적 특성	연령(세)		76.22 (6.55)	72.66 (5.45)	76.94 (6.52)	-12.59***
	교육 수준	무학	1,065 (54.0)	137 (41.3)	928 (56.6)	32.91***
		초등학교	603 (30.6)	123 (37.1)	480 (29.3)	
		중학교	141 (7.1)	40 (12.0)	101 (6.1)	
		고등학교	133 (6.7)	28 (8.4)	105 (6.4)	
		대학 이상	31 (1.6)	4 (1.2)	27 (1.6)	5.21***
		교육연수(년)	3.90 (4.14)	4.95 (4.03)	3.68 (4.13)	
	취업 여부	취업	430 (21.8)	96 (28.9)	334 (20.4)	11.84**
		비취업	1,542 (78.2)	236 (71.1)	1,306 (79.6)	
	거주 지역	동	1,405 (71.2)	272 (81.9)	1,133 (69.1)	22.23***
		읍/면	567 (28.8)	60 (18.1)	507 (30.9)	
재무 특성	연간 소득	근로+사업소득	95.32 (289.96)	170.94 (485.29)	80.03 (228.43)	3.34**
		재산소득	63.89 (269.46)	187.01 (501.58)	38.98 (181.24)	5.31***
		연금소득	2.66 (46.50)	2.73 (26.91)	2.64 (49.53)	.03
		사적이전소득	370.13 (363.88)	339.54 (388.61)	376.31 (358.48)	-1.68
		공적이전소득	276.13 (378.08)	251.27 (343.69)	281.16 (384.57)	-1.31
		총소득	808.13 (580.52)	951.49 (800.64)	779.13 (520.44)	3.76***
	연간소비지출		759.23 (523.23)	915.15 (616.55)	727.66 (496.53)	5.21***
	자산	부동산 자산	8,181.31 (15,536.51)	18,106.41 (22,041.33)	6,177.15 (12,975.69)	9.51***
		금융자산	1,152.80 (3,230.04)	1,305.63 (3,408.75)	1,121.94 (3,192.94)	.90
		기타자산	50.50 (370.42)	157.68 (820.38)	28.85 (163.02)	2.84**
		총자산	9,384.60 (16,845.66)	19,569.72 (23,562.65)	7,327.94 (14,285.72)	9.11***
생활 만족도	경제상태		2.33 (.87)	2.29 (.84)	2.33 (.88)	-.77
	자녀와의 관계		3.32 (1.20)	3.18 (1.25)	3.35 (1.19)	-2.31*
	사회·여가·문화활동		2.97 (.88)	3.01 (.89)	2.96 (.88)	.945

*p<.05, **p<.01, ***p<.001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여성노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가계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부채보유가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노인가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4.2.3 남성노인가구의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 재무특성, 생활만족도 비교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남성노인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재무특성 및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구사회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보유 남성노인의 평균 연령(72.1세)이 부채미보유 남성노인의 평균 연령(74.6세)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부채보유 남성노인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이 높은 반면, 부채미보유 남성노인은 중학교 이하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연수도 부채보유 남성노인(9.56년)이 부채미보유 남성노인(7.40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재무특성을 살펴보면, 부부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와 달리, 남성노인가구의 연간총소득은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연간소비지출은 부채를 보유한 남성이(1,002만원)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829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남성노인가구의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은 부채보유가구 82.8%, 부채미보유가구 79.4%로, 부부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원천별로 비교해 보면, 부부노인가구에서 모든 원천별 소득이 부채보유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달리, 남성노인가구는 재산소득에서만 부채보유가계가 부채미보유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남성노인가구의 총자산(2억 4,948만원)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총자산(8,438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특히 부동산자산이 3.3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남성노인가구의 생활만족도는 부채보유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노인가구의 경우, 앞서 살펴본 부부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와는 달리 거주지역, 총소득 및 원천별 소득,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항목, 생활만족도 등에서 부채보유여부에 따른 특성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남성노인가구의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가계 특성 비교

(단위: 명, %, 만원)

구분	변수		빈도(%) / 평균(표준편차)			x ² /t
			전체 (n=436)	부채 보유 (n=105)	부채 미보유 (n=331)	
인구 사회적 특성	연령(세)		73.98 (6.50)	72.10 (6.17)	74.58 (6.49)	-3.45**
	교육 수준	무학	97 (22.2)	11 (10.4)	86 (26.1)	23.85***
		초등학교	126 (28.9)	34 (32.1)	92 (27.9)	
		중학교	63 (14.4)	9 (8.5)	54 (16.4)	
		고등학교	103 (23.6)	32 (30.2)	71 (21.5)	
		대학 이상	47 (10.8)	20 (18.9)	27 (8.2)	
		교육연수(년)	7.92 (4.83)	9.56 (4.68)	7.40 (4.77)	4.06***
	취업 여부	취업	113 (25.9)	30 (28.6)	83 (25.1)	.51
		비취업	323 (74.1)	75 (71.4)	248 (74.9)	
	거주 지역	동	347 (79.6)	85 (81.0)	262 (79.2)	.16
		읍/면	89 (20.4)	20 (19.0)	69 (20.8)	
재무 특성	연간 소득	근로+사업소득	340.32 (1,190.52)	334.44 (1,015.94)	342.19 (1,242.23)	-.06
		재산소득	96.67 (269.92)	227.70 (427.52)	55.06 (176.63)	4.03***
		연금소득	7.66 (69.11)	26.39 (130.41)	1.71 (28.03)	1.93
		사적이전소득	248.38 (287.79)	211.49 (273.86)	260.10 (291.49)	-1.51
		공적이전소득	390.87 (558.17)	411.26 (625.62)	384.39 (535.85)	.43
		총소득	1,083.89 (1,311.19)	1,211.27 (1,245.19)	1,043.44 (1,330.73)	1.14
	연간소비지출		870.66 (604.09)	1,002.49 (748.68)	828.80 (545.01)	2.20*
	자산	부동산 자산	10,398.35 (25,444.95)	21,948.24 (45,425.18)	6,730.66 (12,112.04)	3.40**
		금융자산	1,673.40 (3,930.59)	2,009.31 (4,176.20)	1,566.74 (3,849.79)	1.01
		기타자산	345.28 (3,322.40)	990.74 (6,630.27)	140.31 (714.58)	1.31
		총자산	12,417.04 (27,375.7)	24,948.29 (47,725.60)	8,437.71 (14,270.42)	3.50**
생활 만족도	경제상태		2.37 (.91)	2.40 (.88)	2.36 (.92)	.46
	자녀와의 관계		2.93 (1.32)	2.80 (1.29)	2.97 (1.33)	-1.18
	사회·여가·문화활동		2.90 (.86)	2.97 (.81)	2.87 (.87)	1.06

*p<.05, **p<.01, ***p<.001

4.3 노인가구 유형별 부채부담지표와 부채상환 가능성 분석

4.3.1 노인가구 유형별 부채부담지표 충족여부 비교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장기부채부담지표와 중기부채부담지표 충족여부를 가구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고, 준거기준은 Lytton 외(2006), 양세정 외(2013)에서 제시한 0.4 이하를 적용하였다. 장기부채부담지표를 충족하는 가구의 비율은 부부노인가구(77.7%)가 가장 높았고, 남성노인가구는 57.6%만이 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부채부담지표는 재무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준(danger point)을 의미하는데, 특히 남성노인가구의 경우에는 부채부담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중기부채부담지표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채부담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준거기준은 Griffith(1985), 양세정·정지영(2010)에 따라 5배 이상을 적용하였다. 중기부채부담지표를 충족하는 가구의 비율도 부부노인가구(63.3%)가 가장 높았고, 여성노인가구와 남성노인가구는 약 48%만이 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채부담지표를 충족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장기부채부담지표를 충족하는 가구의 비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동성 측면에서 부채상환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5> 노인가구 유형별 부채부담지표 충족여부 비교

(단위: 가구, %)

		전체노인가구 (n=1,764)	부부노인가구 (n=1,327)	여성노인가구 (n=332)	남성노인가구 (n=105)	x ² /F
장기부채 부담지표 (총부채/총자산)	충족 (0.4이하)	1,329 (76.9)	1,033 (77.7)	239 (73.8)	57 (57.6)	26.12***
	미충족 (0.4초과)	400 (23.1)	273 (20.9)	85 (26.2)	42 (42.4)	
중기부채 부담지표 (총부채/금융자산)	충족 (5배 이상)	870 (59.7)	711 (63.3)	120 (47.4)	39 (48.1)	26.22***
	미충족 (5배 미만)	588 (40.3)	413 (36.7)	133 (52.6)	42 (51.9)	

*p<.05, **p<.01, ***p<.001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값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수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4.3.2 노인가구 유형별 부채상환 가능성 비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 남은 노후기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 총액의 현재가치]로 총부채의 상환이 가능한 가구의 비율을 가구유형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 남은 노후기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 총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은 총자산과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금융자산+기타자산)을 각각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남은 노후기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 총액은 기대여명 동안 필요한 지출에서 소득을 뺀 금액이며, 물가상승률과 자산수익률을 반영하였는데, 총소득과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각각 적용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 남은 노후기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 총액의 현재가치]가 1보다 크다면, 현재의 보유자산을 처분할 때 노후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부채상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처분할 때, 부부노인가구의 93.8%, 여성노인가구의 91.5%, 남성노인가구의 80.0%가 노후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단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부부노인가구와 여성노인가구의 88% 가량이 총자산을 통해 총부채의 상환이 가능했고, 남성노인가구의 경우에는 69.5%만이 부채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노인가구는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90% 정도로 유동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을 기준으로 부채상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부부노인가구의 8.4%, 남성노인가구의 7.1%가 노후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부채상환이 가능했고, 여성노인가구는 4.2%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단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부부노인가구의 7.2%, 남성노인가구의 5.8%, 여성노인가구는 3.8%만이 부채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유동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표 6> 노인가구 유형별 부채상환가능성 비교

			상환가능 가구(≥ 1) 비율(%)				x2
			전체노인가구 (n=1,764)	부부노인가구 (n=1,327)	여성노인가구 (n=332)	남성노인가구 (n=105)	
부채 상환 가능성	총자산 기준	총소득 반영	92.6	93.8	91.5	80.0	27.58***
		근로·사업 소득 제외	87.1	88.2	88.5	69.5	30.85***
	부동산 제외	총소득 반영	7.6	8.4	4.2	7.1	17.42***
		근로·사업 소득 제외	6.8	7.2	3.8	5.8	16.19***

*p<.05, **p<.01, ***p<.001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값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유형을 부부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 남성노인가구로 구분하여, 부채보유 여부와 부채보유액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유형별 노인가구를 대상으

로 부채보유 여부에 따른 가계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부채부담지표와 부채상환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노인가구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유형에 따라 부채보유가구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부부노인가구가 33.7%로 가장 높았고, 남성노인가구 24.1%, 여성노인가구 16.8%로 나타났다. 부채보유가구의 부채보유액 평균은 부부노인가구 8,616만원, 남성노인가구 5,829만원, 여성노인가구 4,184만원이 순이었다.

둘째, 각 유형별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부채보유여부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부부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 남성노인가구 모두에서 부채보유가구는 부채미보유가구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가구에서는 부채보유집단의 취업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부부노인가구와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부채보유집단은 읍/면 보다는 동 단위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각 유형별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부채보유여부에 따른 재무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간소비지출은 부부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 남성노인가구 모두에서 부채보유가구가 부채미보유가구보다 많았고, 연간소득은 부부노인가구와 여성노인가구에서만 부채보유가구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부부노인가구와 여성노인가구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은 부채보유가구가 많은 반면,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부채미보유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부부노인가구와 여성노인가구는 약 90% 수준, 남성노인가구는 80%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부노인가구는 부채미보유가구의 소득 대비 지출의 비중이 부채보유가구 보다 높은 반면, 여성노인가구와 남성노인가구는 부채보유가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인가구, 남성노인가구의 경우 부채상환의 여력이 더욱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부노인가구, 여성노인가구, 남성노인가구 모두에서, 부채보유집단의 총자산과 부동산자산이 부채미보유집단 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약 90%에 이르렀다.

다섯째, 부부노인가구의 77.7%가 장기부채부담지표(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적정 가이드라인(0.4 이하)을 충족한 반면, 남성노인가구는 57.6%만이 지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건전성의 위험수준을 보여주었다. 중기부채부담지표(금융자산 대비 총부채)를 충족(5배 이상)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장기부채부담지표 충족가구의 비율 보다 낮았다.

여섯째, 부부노인가구의 93.8%가 총자산을 처분하여 노후기간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노인가구는 80.0%만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부채상환이 가능한 노인가구의 비율은 3~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여성노인가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부채상환액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생활비 추정과 부채상환 가능성이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통계청의 2차 자료를 활용, 비소비지출액을 추정하여 부채상환 가능성 분석에 포함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부채부담과 부채상환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파악함으로써, 노인가구가 스스로가 부채부담과 부채상환가능성을 이해하고, 계획적인 부채상환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재무설계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채부담 관련 특성과 부채상환가능성을 노인가구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가구유형별로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노인가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기태·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53-168.
- 김민정·이희숙(201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53-69.
- 김민정·조혜진(2013). “부채보유 은퇴자가계의 재정상태 및 부채상환가능성: 은퇴생활필요자금을 고려한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9(2), 41-62.
- 김시월·조향숙(2012).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재정, 건강, 심리 상태와의 관계”. Financial Planning Review, 5(3), 89-116.
- 김시월·조향숙(2014). “단독가구의 부채유형이 가계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7(1), 157-178.
- 김시월·조향숙·김미리(2015). “가계부채가 노인 소비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비문화연구, 18(2), 21-38.
- 김재호·오신휘(2015). “노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23, 17-28.
- 남상호·백승진(2015). 가계부채가 소득불평등과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재정상태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송현주·윤정혜(2012). “중고령자 빈둥우리가계의 부채보유여부와 가계 재무상태: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4), 37-50.
- 신민경(2014). “1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의 특징”.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1-24.
- 심영(2010). “가구유형별 노인가구의 자산 차이 분석”. 소비문화연구, 13(4), 41-66.
-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양세정·정지영(2010). “국내 재무설계전문가(FP: 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 재무지표 값 조사”.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109-137.
- 양세정·주소현·차경옥·김민정(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43-181.
- 이희숙·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6.
- 전명숙·태명옥(2016).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323-333.
-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0-2035. 통계청 보도자료(2012.8.28.).
- 통계청(2016a). 2016 고령자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2016.9.29.).
- 통계청(2016b).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6.12.20.).
- 통계청(2016c).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통계청 보도자료(2016.12.8.).
- 한국은행(2016). 2016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11.24.).
- DeVaney, S.A. (1993). Changes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V. Langrehr (Ed.), *Proceedings, Thi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pp. 123-131). Iowa State University. Ames, IA: AFCPE.
- Lytton, Grable, & Klock(2006). The process of financial planning: Developing a financial plan. National Underwriter.